

"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" 운영 안내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

♣ 대상: 관내(미추홀구, 중구, 동구, 남동구, 연수구, 옹진군)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

♣ 운영계획

○ 자진신고기간: 2022년 7월 1일 ~ 7월 31일(4주간)

－ 자진신고 창구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(☎032-460-4775, 4628)

※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,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

－ 자진신고 효력:

① 해당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,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면제

②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 기간 1/3 감경

* 부정수급액, 부정수급액 반환 정도, 처벌 전력 등 검토하여 형사처벌 선처 요청

♣ 주요 부정수급 유형

○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대상자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 신청

○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,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

○ 근로계약서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허위제출

○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돌려 받은 경우

○ 그 외 거짓으로 법령상 지원 자격을 꾸며 지원금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

♣ 자진신고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수급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거나(☎032-460-4775) 방문, 팩스 등을 통해 붙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팩스: 0508-8230-0115)



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

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

- 법인 사업장 A는 고용장려금 감원방지의무준수기간에 소속 근로자를 권고사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를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가 이 후 적발되어 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650만원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(제재부가금)을 받고 형사 입건됨.
- 사업주 B씨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기간에 휴직 대상 근로자를 출근 토록 하고 급여명세서 및 급여 이체확인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가 적발되어 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및 2배 추가징수액 등 총 4억 5천여만원 징수 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형법 상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됨.
- 사업주 C씨는 청년 D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천2백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가 우리 청과 경찰서와의 공조수사로 적발되어 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및 2배 추가징수액 등 총 3천7백여만원 징수 처분을 받고 송치됨.